

DAVID HOCKNEY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2·3층
2019년 3월 22일-8월 4일

우리 시대가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 데이비드 호크니



© GETTY IMAGES KOREA

“나는 항상 그림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대중적인 예술가 중 하나다. 1937년 영국 브래드퍼드 출신으로 1960년대에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면서 수영장, 정물 등을 비롯하여 인물 초상화를 다수 제작하며 대중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호크니는 지난 60여 년의 긴 작업 여정 동안 작품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며, 예술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미지들을 제작해왔다.

그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접근 방식으로 2차원 평면에 다채로운 그림을 그려가며 작품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회화, 판화, 드로잉, 사진 등 다양한 장르와 더불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서 폭넓은 범주를 다루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데이비드 호크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아시아 지역 첫 대규모 개인전으로, 1950년대 초부터 2017년까지의 회화, 드로잉, 판화 133점을 선보이며 작가의 시기별 작품 특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영국 테이트미술관이 소장한 다수의 컬렉션과 그 밖의 해외 소장품을 함께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촉망받는 예술대학 학생 시절에서부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작가로 자리매김한 현재까지, 호크니가 수많은 매체를 통해 보는 방식과 재현의 문제에 관해 어떻게 의문을 제기해왔는지, 총 일곱 개로 구성된 섹션을 통해 그 놀라운 행보를 추적해간다.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기



© DAVID HOCKNEY, COLLECTION TATE, U.K. © TATE, LONDON 2019

브래드퍼드 예술학교 학생 시절 호크니는 실물 드로잉과 외부 세계에 대한 충실한 관찰에 입각한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음산한 색과 환영적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회화와 석판화를 제작했다. 당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가 한창 각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크니는 추상과 재현적 이미지를 구분하는 경계를 흐려가면서, 도식화된 인물의 형태, 그라피티 등을 사용하여 성(性)과 사랑에 관한 주제를 전달했다.

이 시기에 호크니는 무엇이든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피카소처럼 다양한 양식과 여러 그림 제작 방식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영국왕립예술학교를 졸업한 후 성숙한 예술가로서 작품에 자신만의 특성을 부여하고, 양식상의 자유를 발전시켜나갔다.

난봉꾼의 행각

《난봉꾼의 행각》(1961~3) 시리즈는 18세기 영국 사회를 풍자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화가이자 판화가였던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동명의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판화이다. 호크니는 뉴욕을 배경으로 한 자전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현대 사회상과 시대에 맞게 내용을 교훈적으로 각색하였다. 그는 1961년 첫 뉴욕 방문 시 작품 구상을 위한 이미지를 수집했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정체성을 잃는 과정, 미술계의 부패와 타락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
〈환영적 양식으로 그린 차(茶) 그림〉, 1961,
캔버스에 유채, 232.5×83cm

↑
〈도착〉, 《난봉꾼의 행각》 시리즈 중, 1961~3,
종이에 에칭, 애쿼틴트, 30×40cm

로스앤젤레스

1964년부터 호크니는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인근에 거주하며 이 도시를 그리기 시작한다. 뜨거운 햇빛과 자유로움을 발산하는 로스앤젤레스에 완전히 매료된 호크니는 묘사에 관한 문제에 계속해서 몰두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유리의 투명성, 계속해서 움직이는 물의 특성을 포착하는 방식 등에 천착하며 기술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했던 호크니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대표 작품인 <더 큰 침병>(1967)에서 그는 단순화된 형태와 평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 유행하던 추상회화, 그리고 회화적 장면의 인공성을 부각시키는 작품 둘레의 경계를 풍자했다. 호크니가 공들여 그린 물살은 우연성에 대한 탐구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실적으로 묘사한 배경의 낮은 건물은 미니멀리즘 미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근대적 그리드에 대한 유희적 풍자이기도 하다.



카바피의 시 14편을 위한 삽화

© DAVID HOCKNEY



《카바피의 시 14편을 위한 삽화》(1966) 시리즈는 그리스 시인 콘스탄틴 카바피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호크니의 대표적인 에칭 시리즈이다.

호크니는 1966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여행한 후 이 시리즈를 위한 많은 드로잉을 제작한다. 작품들은 카바피의 글의 명확함과 단순성에 어울리게 간결한 선으로 묘사되었으며, 이국적인 중동의 건축물과 분위기를 배경으로 두 남성 간의 만남과 헤어짐에서 오는 감정을 표현했다. 카바피의 시와 호크니의 에칭은 성적인 표현이 과하지는 않지만, 작품이 나타내는 내용—육체적 욕망, 두 남성의 사랑에 대한 변주—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더 큰 침병〉, 1967, 캔버스에 아크릴릭,
242.5×243.9cm

↑
〈절망 속에서〉, 《카바피의 시 14편을 위한
삽화》 중, 1966, 종이에 에칭,
34.5×22.3cm

자연주의를 향하여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호크니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세계에 상당히 감성적으로 반응하며 이미지를 제작했다. ‘자연주의를 향하여’에서는 그가 오랜 시간 관찰을 통해 느낀 빛과 그림자, 인물, 그리고 공간과 깊이를 표현하는 데 보다 집중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특히 이 시기에 그려진 2인 초상화 시리즈는 영국 테이트미술관에 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오랫동안 주변 인물들을 모델로 면밀히 관찰하고 다수의 습작 드로잉을 거듭한 끝에 탄생했는데, 특히 〈클라크 부부와 퍼시〉(1970~1)의 등장인물들은 거의 실물 크기로 제작되어 마치 관객이 서 있는 실제 공간에 대상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 DAVID HOCKNEY, COLLECTION TATE, U.K. © TATE, LONDON 2019

푸른 기타



© DAVID HOCKNEY

1973년 피카소가 사망한 이후 그의 화풍과 예술 세계가 호크니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푸른 기타》(1976~7) 시리즈에서는 피카소에 대한 호크니의 경외심과 탐구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 ‘자연주의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던 호크니에게 피카소와의 유대감은 위안을 주었고, 양식의 엄격함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비록 본인은 판화가가 아니며 단지 약간의 판화 작업을 일삼는 화가일 뿐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 판화를 통해 호크니는 20세기 후반 판화사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중요 작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클라크 부부와 퍼시〉, 1970~1, 캔버스에
아크릴릭, 213.4×304.8cm

↑
〈세레나데〉, 《푸른 기타》 시리즈 중, 1976~7,
하드그라운드, 소프트그라운드 에칭,
에퀴티트, 55.3×45.7cm

움직이는 초점

1980년대 호크니는 작품 스타일과 매체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며 계속하여 다작을 이어간다. 사진, 연극 무대 디자인, 중국의 회화(두루마리 회화)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면서 일시적으로는 판화로 관심을 돌려 입체주의, 회화 공간,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른 실체들을 2차원 평면에 어떻게 재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호크니가 ‘움직이는 초점’이라고 지칭하는 이 시기의 아이디어는 원근, 기억, 공간에 대한 해석으로, 이 섹션에서는 작가에게 중요한 모델들을 대상으로 그린 여러 점의 초상화, 강렬한 색으로 표현한 정물화,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는 복합적인 실내 풍경 작품들을 소개한다.



추상

1990년대 초, 카메라가 세상을 동질화하고 능동적으로 보는 행위를 퇴화시킨다고 결론을 내린 호크니는 세계를 묘사할 수 있는 실험적인 방식들을 계속해서 모색했다. '추상' 섹션의 작품 <다른 쪽>(1990~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 호크니는 추상적 패턴과 형태가 조합된 이미지로 회귀하였다. 선명한 색감과 다양한 패턴의 면,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의 조합은 생경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새로운 공간 표현과 인상적인 색의 사용이 이후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영역에서의 활동과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 시기의 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다.



© DAVID HOCKNEY

←
<카리브해의 티타임>, 1987, 4개의 패널 위
종이에 석판화, 스크린 인쇄, 인쇄물, 스텐실,
215×290×54 cm

↑
<다른 쪽>, 1990~3, 2개의 캔버스에 유채,
183×335.2 cm

호크니가 본 세상

‘호크니가 본 세상’에서는 21세기 전환기에 제작된 그랜드 캐니언 풍경화와 고향 요크셔로 돌아가 탄생시킨 거대 규모의 요크셔 풍경화 작품을 소개한다. 최근작인 〈2017년 12월, 스튜디오에서〉(2017)는 3,000장의 사진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어 붙여 제작한 하나의 사진 드로잉 작품으로, 지금까지의 호크니의 작업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며 최근 호크니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확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DAVID HOCKNEY, COLLECTION TATE, U.K. © TATE, LONDON 2019



“눈은 언제나 움직인다.
 눈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눈이 움직일 때, 내가 보는 방식에 따라
 시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실제로 다섯 명의 인물을 바라볼 때
 그곳에는 1천 개의 시점이 존재한다.”

© DAVID HOCKNE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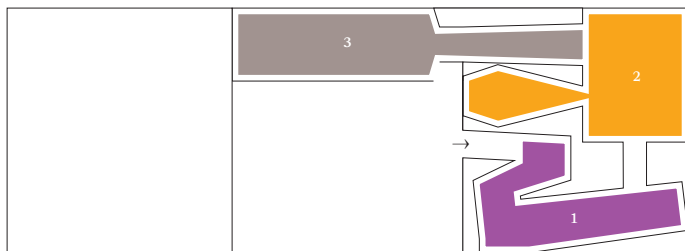
〈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 또는 새로운
 포스트-사진 시대를 위한 야외에서 그린
 회화〉, 2007, 50개의 캔버스에 유채,
 457.5×1220 cm

↑

〈2017년 12월, 스튜디오에서〉, 2017,
 사진 인쇄, 7판의 다이본드에 접착,
 278.1×760.1 cm, 제작 지원: 조너선 월킨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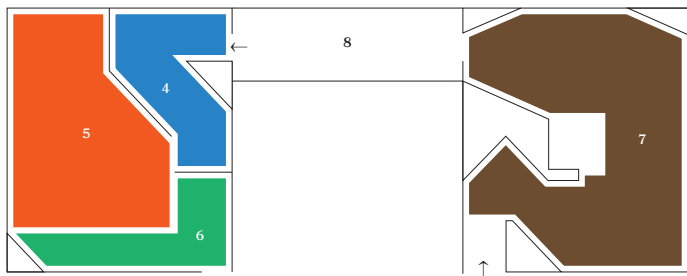


2층



- 1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기
- 2 로스앤젤레스
- 3 자연주의를 향하여

3층



- 4 푸른 기타
- 5 움직이는 초점
- 6 추상
- 7 호크니가 본 세상

- 8 호크니 라운지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영국 테이트미술관
주관 (주)시월
후원 영국문화원
협찬 카카오페이

전시 예매

1899 0042 | ticket.melon.com

Melón Ticket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주)시월에 있으며, 도판의 저작권은 각 도판
명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자료의 사용 및 무단 복제
등을 금합니다.

All works by David Hockney

© David Hockney

앞표지: 〈환영적 양식으로 그린 차(茶) 그림〉,
1961, 캔버스에 유채, 232.5×83 cm



I·SEOUL·U

TATE

시월

BRITISH
COUNCIL

